

## 초등학교 전이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행복감 변화유형: 취학 전 아동 및 부모 특성을 중심으로\*

안수빈<sup>1)</sup> 은선민<sup>2)</sup> 이강이<sup>3)</sup>

---

### 요약

---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전이를 경험하는 아동의 행복감 변화 유형을 살펴보고, 각 유형 별 취학 전 시기의 아동 및 부모 특성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조사 7차년도(7세)와 8차년도(8세) 자료(N=1,480)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전이를 거치며 아동의 행복감은 유의하게 낮아졌다. 둘째, 아동의 행복감 변화유형은 높음 유지형, 상승형, 감소형, 낮음 유지형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초등학교 전이 시기 아동의 행복감 변화 유형에 따라 학교준비도, 부모 양육행동 및 행복감, 또래놀이행동이 달랐다. 구체적으로 높음 유지형이 감소형에 비해 학교준비도가 높았으며, 낮음 유지형과 감소형에 비해 부모 양육행동이 온정적이었다. 또한 높음 유지형과 상승형의 부모 행복감이 높았으며, 높음 유지형이 감소형에 비해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이 높았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로의 행복한 전이를 위한 지원 및 개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초등학교 전이, 행복감, 변화 유형, 군집분석, 한국아동패널

---

## I. 서론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전이(transition)시기는 발달과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화의 시기이다(Huser, Dockett, & Perry 2016; Karila & Rantavuori, 2014; Sameroff & Haith, 1996). 놀이와 비형식적 상호작용 중심의 보육 및 교육 과정에서 구조적이고 학

---

\* 본 논문은 제8회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회(2017.10.20.) 발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2)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3)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업중심적인 초등학교 과정으로 옮겨가며, 아동은 환경의 질적 변화를 경험한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같은 유아 보육·교육 기관과 초등학교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일과 운영, 교육 내용,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에서 차이가 있다(이윤미, 2007). 아동은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역할과 기대에 맞춰 적응해야 하며, 이전과는 다른 책임감과 자립심을 키워야 한다(Rimm-Kaufman & Pianta, 2000).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는 것은 순조로운 이행의 지표가 되며(Broström, 2002), 이는 곧 아동의 학교 생활 만족도 및 행복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성공적인 초등학교로의 전이는 학교 교육에 대한 아동의 긍정적 인식과 이후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며(Pianta & Kraft-Sayre, 1999; Sink, Edwards, & Weir, 2007), 이후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Eckert et al., 2008).

초등학교 입학은 아동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규준적 전이(normal transition) 가운데 하나이지만(Bronfenbrenner, 1979), 전이과정에 수반되는 다양한 사회적, 물리적 변화로 인해 일부 아동은 심리적 불안 및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이귀숙·정현희, 2008).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만 5세 유아의 정서를 고찰한 최은정(2012)의 연구에서 유아는 성장에 대한 기대, 공부할 것에 대한 동경, 꿈에 다가가는 기쁨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경험함과 동시에 단계별 학습에 대한 두려움, 학습 수행에 대한 부담, 낯선 교실에 대한 불안, 공격적 또래와의 만남에 대한 걱정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초등학교 입학 앞둔 유아는 학교에 입학한다는 막연한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업과 또래 관계에 대해 높은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조경자, 2005). 이처럼 초등학교로의 전이는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전이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부모(김창복·이신영, 2013; 허혜경, 2014) 또는 교사(이경민·강정원, 2006; 이은주, 2010)의 인식을 파악하는 연구와 초등학교 전이 프로그램의 효과성(김태은, 2011; 안영혜, 2014)을 파악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초등학교 전이과정의 주체인 아동의 심리 정서적 안정감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전이기를 경험하는 아동의 심리 정서적 안정감에 초점을 맞추어 이 시기 아동의 행복감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아동의 행복감과 관련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아동의 행복에 관한 지금까지의 국내 선행연구는 아동이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 및 구성요인을 파악하는 연구(정혜숙·김영희 2014), 아동 행복감 측정 도구 개발 연구(최혜영 외, 2009),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는 연구(문수경·이무영, 2008; 이경선, 2017)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생애주기에 따른 사건

을 경험하며 변화하는 아동의 행복감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감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본 연구들이 소수(전미경·장재숙, 2009; 조한익, 2016) 있을 뿐이다. 개인의 삶의 질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애 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동태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에 주목해 보았을 때(유태균·반정호, 2012),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전환 사건을 경험하는 아동의 행복감 변화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애 다양한 사건들로 인한 환경의 변화는 개인의 행복감 변화를 야기 할 수 있으나, 행복감의 구체적인 변화 양상은 이질적인 패턴을 가질 수 있다. 즉,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였어도 이에 따른 행복감 변화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모든 연구대상이 동질적이라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는 변인중심의 연구가 아닌 맥락 속에서의 개인을 강조하는 개인 중심적 접근의 연구가 필요하다(Magnusson & Stattin, 2007). 개인 중심적 연구는 특정 변인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을 하위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실제적인 개인들의 변화와 발달을 고찰하기에 보다 적절한 연구방법이다(이귀숙·정현희, 2008). 생애 사건에 따른 변화를 개인 중심적 접근으로 살펴본 기존의 선행연구는 주로 은퇴라는 생애 사건을 경험한 개인을 탐색해왔다(Pinquart, Schindler, 2007; Wang, 2007; 강은나, 2013).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은퇴 전후 시기의 생활만족도, 삶의 질 등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변화 양상에 따라 증가 집단, 감소 집단, 유지 집단 등으로 나뉘는 특성을 확인하고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전이 과정에서 아동의 심리정서의 변화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나,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사건을 경험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발달과업을 수행해 나가는 아동의 행복감 변화 양상을 유형 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유아가 초등학생이 되는 것에 대해 기대감과 더불어 걱정 및 불안과 같은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최은정, 2012)를 고려해보았을 때, 초등학교에 진학하며 행복 수준이 증가한 아동이 있는 반면, 행복 수준이 감소하는 아동 또한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이를 실증적으로 파악해보기 위해 이 연구는 초등학교 전이에 따른 아동의 행복감 변화를 개인 내적 수준에서 분석하여 변화 양상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각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행복감은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생태학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아동의 행복감에 관한 선행연구는 기질(Holder et al., 2012)이나 자아존중감(이재경·조혜정, 2012)과 같은 아동 개인의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부모 요인(김도란·김정원, 2008; 김주리·김남희, 2014), 또래 요인(하선아·진미경, 2014) 등 다양한 요인이 아동의 행복감과 관련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횡단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분석하였기에 인과적인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변수들과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는 초등학교 취학 전과 후의 행복감 변화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취학 전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횡단적인 시점에서 행복감과 관련 있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에서 나아가 초등학교 전이에 따른 아동의 행복감의 향상 또는 감소와 같은 변화 양상을 예측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행복감 변화 유형별 초등학교 입학 이전 시점에 측정된 학교 준비도, 부모의 양육행동 및 행복감, 또래 놀이행동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초등학교로의 성공적인 전이를 위해 취학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school readiness)는 매우 중요하다. 학교준비도는 초등학교 입학 후 학업 및 다양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준비되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지, 언어, 사회정서능력을 포함하는 복합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Rimm-Kaufman & Pianta, 2000). 이러한 취학 전 학교준비도는 초등학교 입학 후 아동의 학교적응 및 학업 성취를 예측하며(Ramey & Ramey, 2004),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아동은 학교에 입학한 후에 부적응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인다(Rouse, Brooks-Gunn, & McLanahan, 2005). 학교준비도와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녕감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 결과는 없으나, 인지, 언어, 사회정서 등의 전반적인 발달영역에서 학교생활을 수행할 준비가 된 아동은 새로운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하며 행복감을 느낄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다양한 생태학적 요인들 중 특히 부모 관련 변수는 다수의 연구에서 아동의 행복감과 관련성이 확인되어 왔다(김도란·김정원, 2008; 김주리·김남희, 2014; 이은진, 2011; 전은옥·최나야, 2013; Gherasim, Brumariu, & Alim, 2017).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과 같은 돌봄에 가까운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가진 부모의 자녀가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김주리·김남희 2014), 과보호나 방임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행복감과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연희, 2013). 또한 부모의 행복감과 자녀의 행복감도 높은 수준으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가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느낄수록 자녀 역시 행복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김도란·김정원, 2008).

아동이 유아기에서 학령기가 됨에 따라 또래는 부모와 더불어 점차 아동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자리 잡게 된다(Rubin, 1982). 유아가 인식하는 행복의 개념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유아가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를 행복의 주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고되었으며(김성숙, 2013; 김희진·김민진, 2015). 또래 유능성이 높은 집단의 학령 전

유아가 또래 유능성이 낮은 집단의 유아에 비해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선아·진미경, 2014).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또래 관계에 수용되고 인정받는 경험은 유아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시켜 정서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반면, 또래관계에서 위축되거나 거부되는 경험을 한 아동은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기회를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등의 내재적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처럼 또래 관계에서의 경험은 이후 아동의 안녕감 및 행복감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 예측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7세 시기의 행복감과 초등학교 1학년인 8세 시기의 아동의 행복감을 비교하여 변화 양상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취학 전 시기의 아동의 학교준비도, 부모의 양육행동 및 행복감, 또래 놀이행동을 중심으로 유형간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처럼 초등학교 전이 과정을 겪는 아동의 행복감을 변화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각 유형의 취학 전 아동 및 부모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초등학교로의 행복한 전이를 위한 지원 및 개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초등학교 입학 전과 입학 후의 아동의 행복감의 양상은 어떠하며, 시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초등학교 전이 과정에서 아동의 행복감 변화 유형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초등학교 전이 과정에서 아동의 행복감 변화 유형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부모의 양육 행동 및 행복감, 또래 놀이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8년부터 수집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자료의 7차년도(2014년)와 8차년도(2015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7차년도 자료는 2014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수집되었고, 8차년도 자료는 2015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수집되었다. 전체 2,150 패널 중 7차년도와 8차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1,48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주요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753명(50.9%), 여아가 727명(49.1%)이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대학교졸업이 41.7%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졸업이 26.5%, 전문대졸업 27.8%, 대학원졸업 10.8%, 중학교 졸업이하가 4%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대학교졸업이 37.4%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졸업이 28.7%, 전문대졸업 27.8%, 대학원졸업 5.6%, 중학교 졸업이하가 4%로 뒤를 이었다. 월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 7.1%,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0.7%, 300만원이상 400만원 미만 26.8%,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2.2%,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0.2%, 600만원 이상 12.9%에 해당했다.

## 2. 측정도구

### 가. 아동의 행복감

아동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Lyubomirsky와 Lepper(1999)가 개발한 주관적 행복감 도구(Subjective Happiness Scale: SHS)를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진이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원 도구는 7점 Likert 척도이나, 응답범위를 1점에서 4점까지로 변형하고 표정카드를 제시하여 아동의 응답을 도왔다. 문항은 총 4 문항으로 구성되며 4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문항 간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를 분석한 결과, 7차년도는 .55, 8차년도는 .70으로 나타났다.

### 나. 학교 준비도

아동의 학교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해 Murphey와 Burns(2002)가 제작한 도구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안하여 사용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학교준비도 척도는 총 22문항이며, 사회정서발달 6문항(예: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다.”), 학습에 대한 태도 8문항(예: “간단한 규칙과 지시를 잘 따른다.”), 의사소통 3문항(예: “욕구, 필요한 것, 생각들을 말로 표현한다.”),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 5문항(예: “책의 내용을 이해한다.”)으로 구성된다.

문항 응답은 Likert형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아지원기관의 담임교사가 해당 아동의 평소 행동에 기초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로 점수화한다. 총점을 문항수로 나누어 1점부터 4점까지의 점수분포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령 전 유아의 학교에 대한 준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준비도 하위영역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를 분석한 결과, .77-.86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 다. 부모의 양육행동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조복희 등(1999)의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 아동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양육행동 척도는 통제적 양육행동 6문항과 온정적 양육행동 6문항으로 구성되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의 평소 행동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의 7차년도 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의 양육행동과 모의 양육행동을 사용하였다. 양육행동의 하위영역에 따른 부와 모의 문항 응답의 총점을 문항수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통제적/온정적인 양육행동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s  $\alpha$ ) 분석 결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86, 통제적 양육행동은 .78로 나타났다.

#### 라. 부모의 행복감

부모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Lyubomirsky와 Lepper(1999)가 개발한 주관적 행복감 도구(Subjective Happiness Scale: SHS)를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진이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문항 응답은 Likert형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의 7차년도 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의 행복감과 모의 행복감을 사용하였다. 부의 행복감과 모의 행복감은 각각 4 문항으로 구성되며, 분석에는 4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문항 간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를 분석한 결과, 부의 행복감은 .88, 모의 행복감은 .87로 나타났다.

#### 마. 또래 놀이행동

아동의 또래 놀이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Fantuzzo와 동료들(1998)이 개발한 척도를 최혜영과 신혜영(2008)이 타당화한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래 놀이행동 척도는 총 30문항이며, 놀이 상호작용 9문항, 놀이 방해 13문항, 놀이 단절 8문항으로 구성된다. 놀이 상호작용은 긍정적인 또래 놀이행동으로, 친사회적인 특성과 놀이를 순조롭게 이어가는 특성을 의미한다(예: “친구를 돕는다”). 반면, 놀이 방해와 놀이 단절은 부정적인 또래 놀이행동이다. 놀이 방해는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행동을 의미하며(예: “몸싸움이나 말싸움을 시작한다”), 놀이

단절은 위축되거나 또래에게 무시 또는 거부당하는 특성을 의미한다(예; “다른 친구에게 거부당한다”).

문항 응답은 Likert형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아지원기관의 담임교사가 해당 아동의 행동에 기초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로 점수화 한다. 총점을 문항수로 나누어 1점부터 4점까지의 점수분포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각 유형에 해당하는 놀이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7차년도 또래 놀이행동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놀이 상호작용 .81, 놀이방해 .88, 놀이단절 .89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 3. 자료분석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아동의 행복감이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행복감 변화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아동의 행복감 평균값을 활용하여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분석으로 나뉜 집단별로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고, 집단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분석으로 Duncan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아동의 행복감 양상

아동의 행복감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행복감은 시기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구체적으로, 취학 전 시기인 7차년도의 아동의 행복감 평균점수는 3.60점( $SD = .50$ )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인 8차년도의 아동의 행복감 평균점수는 3.20점( $SD = .54$ )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전이를 거치며 아동의 행복감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표 1〉 아동의 행복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변인	7차년도(7세) M(SD)	8차년도(8세) M(SD)	t
아동의 행복감	3.60(.50)	3.20(.54)	23.210***

\*\*\*  $p < .001$ 

## 2. 행복감 변화유형 분류를 위한 군집분석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전이에 따른 행복감의 변화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7차시기 아동의 행복감과 8차시기 아동의 행복감을 활용하여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총 4개의 군집이 확인되었는데, 군집 1은 전체의 63.1%(934명), 군집 2는 8.6%(127명), 군집 3은 14.3%(212명), 군집 4는 14.0%(207명)를 차지하였다.

군집 1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진학 이전 시기인 7차년도와 초등학교 진학 이후인 8차년도 시기 모두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보인 집단으로, '높음 유지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7차년도 시기에는 낮은 행복감을 보였으나, 8차년도 시기에는 높은 수준을 보인 집단으로 '상승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7차년도 시기에는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보고 하였으나, 8차년도에는 전체 군집 중 가장 낮은 수준의 행복감을 보인 집단으로 '감소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 4는 7차년도와 8차년도 모두 낮은 수준의 행복감을 보이는 집단으로 '낮음 유지형'으로 명명하였다.

행복감 변화 유형별로 7차년도와 8차년도의 아동의 행복감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F검증을 실시하여 살펴 본 결과, 유형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취학 전 시기인 7차년도에는 군집 3과 군집 1의 행복감이 다른 군집에 비해 유의하게 높고, 군집 2의 행복감이 가장 낮았으며,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인 8차년도에는 군집 1의 행복감이 가장 높고, 군집 3의 행복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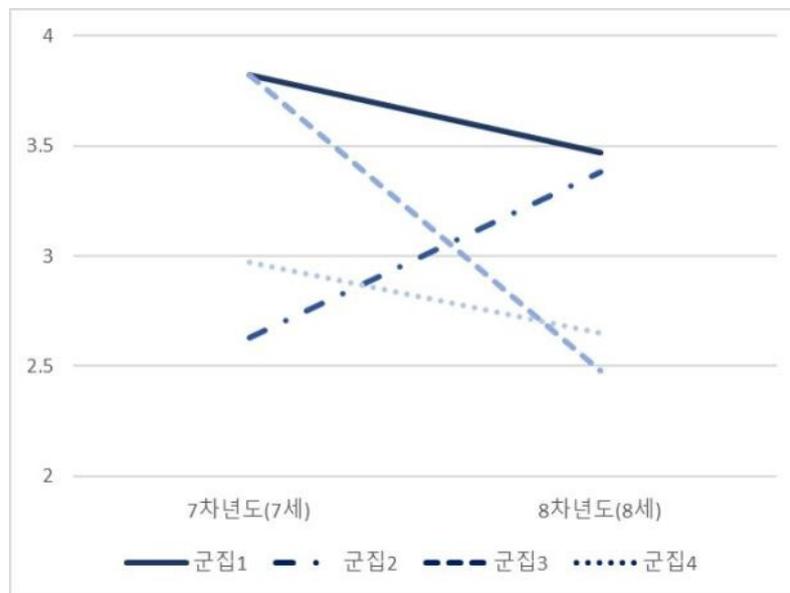
〈표 2〉 행복감 변화유형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및 군집 간 차이검증 결과

시기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전체	F	duncan
	M (SD)	M (SD)	M (SD)	M (SD)	M (SD)		
7차년도 (7세)	3.82 (.26)	2.63 (.40)	3.82 (.22)	2.97 (.33)	3.60 (.50)	1081.536***	3,1>4>2

시기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전체	F	duncan
	M (SD)	M (SD)	M (SD)	M (SD)	M (SD)		
8차년도 (8세)	3.47 (.37)	3.38 (.34)	2.48 (.36)	2.65 (.36)	3.20 (.54)	617.408***	1)2)4)3

주: 군집 1: 높음 유지형, 군집 2: 상승형, 군집 3: 감소형, 군집 4: 낮음 유지형

\*\*\*  $p < .001$ .



[그림 1] 행복감 변화유형에 대한 군집

### 3. 행복감 변화유형간 비교를 위한 변량분석

초등학교 전이에 따른 아동의 행복감 변화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과 집단 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우선, 초등학교 진학 전 7세 시기의 아동의 학교준비도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교준비도의 하위 영역인 사회정서( $F=4.045, p<.01$ )와 학습태도( $F=4.152, p<.01$ )에서 군집 1은 군집 3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의사소통( $F=4.201, p<.01$ )에서 군집 1과 4는 군집 3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인지지식( $F=5.148, p<.01$ )에서 군집 2, 1, 4는 군집 3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유지한 아동(군집 1)은 초등학교 전이에 따라 행복감

이 감소한 아동(군집 3)에 비해 학교준비도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에 따라, 취학 전 행복감이 유사하게 높았다 할지라도 초등학교에 원활하게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발달 영역에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 후 행복감이 낮은 수준으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아동의 행복감 변화 유형에 따른 집단 간에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행동 중 온정적 양육행동에서 군집1은 군집 4, 3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부모의 양육행동 중 통제적 양육행동은 군집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군집 1에 해당하는 높음 유지형 아동은 낮음 유지형 아동과 감소형 아동에 비해 부모의 양육행동이 더 온정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7차년도의 부와 모의 행복감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1, 2가 군집 3, 4에 비해 7차년도의 부의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의 행복감에서는 군집 1, 2가 군집 3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유지하는 아동(군집 1)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진학 이후 행복감이 증가한 아동(군집 2)은 초등학교 진학 전 부와 모의 행복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초등학교 진학 이전 시기에는 행복감 수준이 높았으나, 초등학교에 진학하며 점차 행복감이 감소한 유형의 아동(군집 3)은 초등학교 진학 이전 시기에 부모의 행복도가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행복감이 횡단적 시점에서 자녀의 행복감과 관련 있을 뿐만 아니라(김도란, 김정원, 2008), 이후 시점의 자녀의 행복감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행복감의 변화 양상의 차이를 야기함을 시사한다.

초등학교 전이과정에서의 행복감 변화 유형에 따라 취학 전 7세 시기의 또래놀이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래놀이행동의 하위 영역 중 친사회적이고 놀이를 순조롭게 이어가는 특성에 해당하는 놀이상호작용은 군집 1이 군집 3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축되거나 또래에게 무시 또는 거부당하는 특성에 해당하는 놀이단절은 군집 3이 군집 1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진학 전과 후 모두 평균 보다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유지하는 아동(군집 1)은 취학 전에는 행복감이 높았으나 점차 행복감이 감소하는 아동(군집 3)에 비해 취학 전 유아기에 친사회적인 놀이 상호작용을 많이 한 특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행복감 감소 유형 아동(군집 3)은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유지하는 유형의 아동(군집 1)에 비해 취학 전 또래 관계에서 위축되거나 또래에서 무시 또는 거부당하는 경험을 더 높게 보였음이 확인되었다.

〈표 3〉 행복감 변화유형간 차이에 대한 변량분석 및 사후검증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전체	F	duncan
	M (SD)	M (SD)	M (SD)	M (SD)	M (SD)		
학교준비도							
사회정서	3.54 (.41)	3.46 (.50)	3.43 (.43)	3.48 (.44)	3.51 (.43)	4.045**	1)3
학습태도	3.40 (.51)	3.35 (.51)	3.25 (.52)	3.34 (.51)	3.37 (.51)	4.152**	1)3
의사소통	3.55 (.54)	3.50 (.50)	3.38 (.55)	3.53 (.51)	3.52 (.54)	4.201**	1,4)3
인지지식	3.66 (.40)	3.67 (.35)	3.52 (.40)	3.66 (.39)	3.64 (.40)	5.148**	2,1,4)3
부모양육행동							
온정적	3.61 (.45)	3.54 (.49)	3.49 (.43)	3.51 (.45)	3.58 (.45)	5.862**	1)4,3
통제적	3.39 (.43)	3.42 (.42)	3.36 (.41)	3.40 (.42)	3.39 (.42)	.570	
부모행복감							
모-행복감	5.30 (1.04)	5.24 (1.13)	3.00 (1.07)	5.10 (1.07)	5.22 (1.06)	5.197**	1,2)3
부-행복감	5.38 (1.03)	5.36 (.97)	5.15 (.96)	5.13 (.95)	5.31 (1.01)	5.105**	1,2)3,4
또래놀이행동							
놀이 상호작용	3.11 (.45)	3.05 (.45)	3.00 (.45)	3.07 (.42)	3.08 (.45)	2.916*	1)3
놀이방해	1.91 (.49)	1.92 (.54)	2.02 (.56)	1.99 (.54)	1.94 (.51)	2.334	
놀이단절	1.59 (.57)	1.68 (.59)	1.77 (.60)	1.72 (.60)	1.64 (.58)	5.050**	3)1

주: 군집 1: 높음 유지형, 군집 2: 상승형, 군집 3: 감소형, 군집 4: 낮음 유지형

\*  $p < .05$ , \*\*  $p < .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전이에 따른 아동의 행복감 변화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취학 전 시기 아동의 학교준비도, 부모의 양육행동 및 행복감, 또래 놀이행동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수행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전이 과정을 거치며 아동의 전체적인 행복감 수준은 낮아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인 아동의 행복감 점수가 낮아짐을 보고한 선행연구(이정미·이양희, 2008; 정혜숙·김영희, 2014)와 일치한다. 아동은 초등학교에 입학함에 따라 새롭게 주어진 역할과 기대에 부응하며, 여러 가지 신체, 사회,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박희경·강인설, 2014), 이와 같은 부정적 정서가 행복감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취학 전 아동의 행복감과 취학 후 아동의 행복감을 기초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유형분류를 시도한 결과, 높음 유지형, 감소형, 상승형, 낮음 유지형의 네 집단으로 분류가 이루어졌다. 행복감의 변화 양상을 개인 내적 수준에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전무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개인중심적 접근에 근거하여 생애 사건에 따른 개인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양상을 유형화한 선행연구(강은나, 2013; Piquart, Schindler, 2007; Wang, 2007)를 통해 지지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아동의 행복감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본 기존 연구(이재경·조혜정, 2012)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일반적 경향만을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아동의 행복감이 감소하는 맥락 내에서도 개인별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셋째, 초등학교 전이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행복감 변화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전 학교준비도가 달랐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진학 전, 후에서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유지하는 아동은 행복감이 감소한 아동에 비해 사회정서, 학습태도, 의사소통 및 인지지식으로 구성되는 학교준비도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학습관련 기술이 잘 발달된 유아일수록 초등학교 진학 후 학교적응을 더 잘하고, 학업성취 또한 더 높음을 밝혀온 기존 선행연구(박희숙, 2008; Sabol & Pianta, 2012)의 논의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준비가 초등학교에서 경험하는 행복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읽기, 쓰기와 같은 학업관련 준비뿐만 아니라 사회정서 및 의사소통 기술을 취학 전부터 발달시켜가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넷째, 초등학교 전이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행복감 변화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전 부모의 양육행동 및 행복감이 달랐다. 특히 초등학교 진학 전, 후에서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유지하는 아동의 경우, 낮은 수준의 행복감을 유지하거나 초등학교 진학 이후 행복감이 감소하는 아동에 비해 부모의 양육행동이 더 온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자녀를 애정적이고 민감한 행동으로 양육할수록 자녀의 행복감이 더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김주리·김남희, 2014; 이은진, 2011)의 결과와 동일한 맥락에 있다. 즉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는 초등학교 전이과정에서도 높은 행복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따뜻하고 온정적인 양육을 통해 아동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유지하는 아동과 초등학교 진학 이후 행복감이 증가한 아동은 취학 전 부모의 행복도가 높았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모와 정서적 유대가 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높아지며(Corsano, Majorano, & Champretavy, 2006),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유아가 가정환경, 대인관계, 자아특성 등의 영역에서 지각하는 행복감 역시 높아짐을 밝힌 선행연구(김도란·김정원, 2008)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에서의 행복감은 아동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행복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남궁지영·김양분, 2015)을 시사한다.

다섯째, 초등학교 전이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행복감 변화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전 또래 놀이행동 양상이 달랐다. 구체적으로 높은 행복감을 유지하는 아동의 경우 취학 전 긍정적이고 친사회적인 또래상호작용을 더 많이 경험한 것에 반해 초등학교 전이와 함께 행복감이 감소한 아동의 경우 또래 관계에서 위축되고 무시 또는 거부될 당하는 등의 놀이단절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더 유능하여 또래로부터 선호되는 아동이 더 행복하다는 연구결과(하선아·진미경, 2014; Smith, 2001)와 일치하며, 또래 간의 정서적 지지, 공동 활동 및 교환적 활동과 유아가 지각하는 행복감간의 정적 상관을 밝힌 선행연구(이진숙·김은주, 2013)와 맥을 같이 한다. 즉 또래 관계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상호작용은 아동의 행복감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Nickerson & Nagle, 2004). 또래와 함께하는 다양한 협력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사회성을 발달시킴으로서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신수희·이완정, 2014)하는 것이 아동의 행복감 증진 및 유지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취학 전 7세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아동이 경험하는 행복감의 변화를 단기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취학 전부터 취학 후에 이르는 초등학교 전이기는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지만, 이러한 양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에는 다소 짧은

시간일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 전, 후를 기점으로 한 아동의 행복감 변화 양상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아동패널의 7차년도 아동 행복감 도구의 신뢰도는 .55로 낮은 수준이라는 한계점을 가진다. 7세시기에 측정된 아동의 행복감의 신뢰도가 낮게 나온 것은 유아의 발달특성상 이 시기 아동이 행복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고 평가하여 이를 표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유아기 행복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한국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감 측정 도구 개발연구(박주은, 2017)가 진행되기 시작한 만큼, 후속연구에서는 유아의 행복감을 보다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아동의 주요 발달과업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사건을 기점으로 변화하는 아동의 행복감 양상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였다고 해서 아동의 행복감이 공통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기존 변인중심연구에서 간과되어온 개인내적 수준의 변화를 포착하였다. 이로써 아동의 행복감을 증진 또는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보다 개별적이며 전략적인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초등학교 전이기를 겪으며 증가, 감소 또는 유지되는 아동의 행복감 변화는 취학 전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생태학적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행복감을 바탕으로 온정적 양육을 제공할수록, 학교관련 준비가 잘 되어있을수록, 또래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경험을 많이 쌓을수록 취학 후 아동이 경험하는 행복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원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업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학교생활에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딛는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아동이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본 연구 결과 초등학교 전이 과정을 거치며 아동의 전반적인 행복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과 학교에서 이 시기 아동의 행복감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향상시켜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이 제기된다.

우선 초등학교 전이과정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발달적, 환경적 변화를 가정에서 부모가 충분히 공감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기반 조성은 필수적일 것이다. 현재 일·가정 양립을 위해 초등학교 전이기 자녀를 둔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다. 이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단축 근로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른 초등학교의 하교시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육아 휴직의 잔여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는 현행제도를 보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방학 시기 등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기간의 유동성을 주는 등의 제도 개선 및 제도 시행 활성화 대책 마련을 통해 초등학교 전이기 아동이 부모와 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부모와 함께 새로운 환경에 긍정적으로 적응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놀이 중심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의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 연구 VI」에 의하면 초등학교 아동들이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 부담'을 가장 많이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의 경우, 놀이 중심의 보육 및 교육 환경에서 구조적이고 학업중심적인 초등학교 과정으로 전이 하며 학업에 대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정규 교육 과정 외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통해 아동들이 또래와 함께 놀이하듯 즐거움을 경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 받는다면, 이 시기 아동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현장에서 행복감을 비롯한 아동의 정서적 안녕감을 주기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동일한 전환 사건을 경험한 아동일지라도, 행복감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육기관에서의 주기적인 행복감 측정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복감이 감소하는 유형의 아동이나 낮은 수준의 행복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아동을 파악하여 개별적으로 적합한 지원 및 개입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유아 교육 기관과 초등학교의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전이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유지한 아동이 행복감이 감소한 아동에 비해 학교준비도 수준이 더 높았다는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로의 자연스러운 전이를 위해 취학 전 시기에 아동의 학교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연계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며(박순경, 2013; 윤혜정·김소향, 2013), 2015년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2015)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누리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만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3)에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관련요소를 유아 교육 기관과 초등학교의 교육 과정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은 여전히 연계교육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조혜진·김수연, 2017). 보다 효과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아교사와 초등저학년 담당 교사가 공동 연수를 받는 등 유 초등연계에 대한 교사 연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교사 양성과정에서 유 초등연계에 관한 과목을 수강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부모의 행복감과 정서적 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그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에 진학하며 전체적인 아동의 행복감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와중에, 초등학교 전이기를 거치며 행복감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상승형 집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승형 집단은 취학 전 시기에 아동 자신의 행복감 수준은 낮았을 지라도 같은 시기의 부모의 행복감이 모두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즉, 일생의 주요한 사건을 경험하는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가정에서의 행복이 충족되었기 때문임을 확인하였다. 부모가 자신의 삶에서 행복감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은 자녀에게 질 높은 양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육아휴직, 출산휴가와 같은 양육지원(손서희, 2017)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 보육료 지급과 같은 재정적 지원(최영·김슬기, 2017)이 함께 이루어져 부모의 양육부담과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의 행복감과 정서적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을 활성화하여 올바른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의 행복한 초등학교 전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및 개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은나(2013). 은퇴 전후 생활만족도의 다중 변화궤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잠재집단성장모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4(3), 85-112.
- 권연희(2013). 유아의 행복에 대한 유아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의 영향. *한국생활과학학회지*, 22(4), 525-537. <http://doi.org/10.5934/kjhe.2013.22.4.525>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지도서. 서울: 보건복지부
- 교육부(2015). 초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1]. 서울: 교육부.
- 김도란·김정원(2008). 유아의 행복감과 부모의 행복감간의 관계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6), 311-333.
- 김성숙(2013). 유아가 인식하는 행복의 의미 탐색. 유아교육연구, 33(3), 377-400.
- 김주리·김남희(2014).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행복감 간 관계. 생애학회지, 4(1), 19-32.
- 김창복·인신영(2013). 자녀의 초등학교 전이 및 적응에 대한 어머니들의 이야기. 어린이미디어연구, 12(3), 319-350.
- 김태은(2011). 초등학교 준비도 향상을 위한 집중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과 학교생활 적응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68, 125-146.
- 김희진·김민진(2015). 다문화가정 유아가 인식한 행복의 의미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9(2), 143-167.
- 남궁지영·김양분(2015).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변인 탐색. 교육학연구, 53(2), 1-25.
- 문수경·이무영(2008).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아시아아동복지연구, 6(3), 19-33.
- 박순경(2013).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필요한 기초학습 능력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26(4), 59-80.
- 박주은(2017). 한국 유아행복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아동과 권리, 21(2), 203-225. <http://doi.org/10.21459/kccr.2017.21.2.203>
- 박희경·강인설(2014). 아동의 행복에 대한 개념 연구. 아동과 권리, 18(3), 367-385.
- 박희숙(2008). 유아 학습관련 기술이 취학 후 아동의 학교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기종단 연구. 아동학회지, 29(6), 73-86.
- 손서희(2017).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이용 경험.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2(1), 87-109. <http://dx.doi.org.libproxy.snu.ac.kr/10.21321/jfr.22.1.87>
- 신수희·이완정(2014). 어머니,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에 대한 유아의 인식과 자아개념.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5), 47-62. <http://dx.doi.org/10.14698/jkcce.2014.10.5.047>
- 안영혜(2014). 5세 유아의 초등학교 생활적응 프로그램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87, 51-82.
- 유태균·반정호(2012). 중고령자 삶의 질 변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8(2), 349-372.
- 윤혜정·김소향(2013). 초등학교 교사의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과 유·초연계교육에 대한 인식

- 및 요구조사, 미래유아교육학회, 20(4), 409-437.
- 이경민·강정원(2006). 보육시설의 초등학교 전이 프로그램 실시 현황 및 교사의 인식. 유아교육학논집, 10(4), 51-75.
- 이경선(2017).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1), 305-324. <http://dx.doi.org/10.22155/JFECE.24.1.305.324>
- 이귀숙·정현희(2008). 학령초기 아동의 문제행동 변화유형에 관한 단기종단 연구. 상담학연구, 9(3), 1283-1296.
- 이윤미(2007).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경험. 초등교육학연구, 14(2), 99-117.
- 이은주(2010). 유아 행복에 대한 예비 유아교사의 인식. 한국보육학회지, 10(4), 129-146.
- 이은진(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행복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재경·조혜정(2012). 학령기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0, 41-71.
- 이진숙·김은주(2013). 아동의 기질, 부모자녀 의사소통, 또래관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2(5), 433-445. <http://dx.doi.org/10.5934/kjhe.2013.22.5.433>
- 이정미·이양희(2008).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도 척도(K-MSLSS)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9(4), 249-268.
- 전미경·장재숙(2009). 아동의 행복감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3), 103-118.
- 전은옥·최나아(2013).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82, 103-126.
- 정혜숙·김영희(2014). 아동이 지각한 행복 결정요인. 청소년학연구, 21(7), 89-118.
- 조경자(2005). 초등학교에 대한 유아의 인식. 유아교육연구, 25(4), 81-103.
- 조복희·이진숙·이홍숙·권희경(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 조한익(2016). 우리나라 아동들의 행복과 우울수준. 아동교육, 25(1), 277-292.
- 조혜진·김수연(2017). 유치원의 유·초등 연계 교육 운영 현황과 교사들이 인식한 어려움. 열린유아교육연구, 22(3), 203-228. <http://dx.doi.org/10.20437/KOAECE22-3-09>
- 최영·김슬기(2017). OECD 국가의 아동가족 현금지원정책과 출산율의 관계. 한국아동복지학, 60, 59-86. <http://dx.doi.org/10.24300/jkscw.2017.12.60.59>
- 최은정(2012). 초등학교 전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만 5세 유아의 정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최혜영·신혜영(2008). 아동 또래 놀이행동 척도 (PIPPS) 의 국내적용을 위한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9(3), 303-318.
- 최혜영·신혜영·최미숙·조성연(2009). 한국 아동의 행복감척도 개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5), 1-11.
- 하선아·진미경(2014). 유아의 정서지능과 또래유능성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7(1), 1-15.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 연구VI : 2016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통계.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허혜경(2014). 유아-초등교육 전이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과 참여실태. 유아교육연구, 34(2), 435-453.
- Bronfenbrenner, U. (1979). Contexts of child rearing: Problems and prospects. *American Psychologist*, 34(10), 844-850. <http://dx.doi.org/10.1037/0003-066X.34.10.844>
- Brostrom, S. (2002). Communication and continuity in the transition from kindergarten to school. In H. Fabian & A-W. Dunlop (Eds), *Transitions in the early years: Debating progression and continuity for children in early education* (pp. 52-63). London: Routledge-Falmer.
- Corsano, P., Majorano, M., Champretavy, L. (2006).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The contribu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 and experience of being alone. *Adolescence*, 41(162), 341-353.
- Eckert, T. L., McIntyre, L. L., DiGennaro, F. D., Arbolino, L., Begeny, J., & Perry, L. J. (2008). Researching the transition to kindergarten for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A literature review of current processes, practices, and programs. In D. H. Molina (Eds.), *School psychology: 21st century issues and challenges* (pp. 235-252). Hauppauge, NY: Nova Science Publishers.
- Fantuzzo, J., Coolahan, K., Mendez, J., McDermott, & Sutton-Smith, B. (1998). Contextually-relevant validation of peer play constructs with African American head start children: Penn Interactive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3), 105-120. [https://doi.org/10.1016/S0885-2006\(99\)80048-9](https://doi.org/10.1016/S0885-2006(99)80048-9)
- Gherasim, L. R., Brumariu, L. E., & Alim, C. L. (2017). Parenting style and children's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ve symptoms: Preliminary Findings from Romania, France, and Russia.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8(4), 1013-1028. <https://doi.org/10.1007/s10902-016-9754-9>
- Holder, M. D., Coleman, B. & Singh, K. (2012). Temperament and happiness in

- children in India.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2), 261-274.  
<https://doi.org/10.1007/s10902-011-9262-x>
- Huser, C., Dockett, S., & Perry, B. (2016). Transition to school: Revisiting the bridge metaphor. *Europ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Journal*, *24*(3), 439-449. <https://doi.org/10.1080/1350293X.2015.1102414>
- Karila, K., & Rantavuori, L. (2014). Discourses at the boundary spaces: Developing a fluent transition from preschool to school. *Early Years*, *34*(4), 377-391. <https://doi.org/10.1080/09575146.2014.967663>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2), 137-155. <https://doi.org/10.1023/A:1006824100041>
- Magnusson, D., & Stattin, H. (2006). The person in the environment: Towards a general model for scientific inquiry. In W. Damon & R. M.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1: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6th ed., pp. 400-464). New York, NY: John Wiley.
- Murphey, D. A., & Burns, C. E. (2002).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community assessment of school readiness. *Early Childhood Research and Practice*, *4*(2), 1-8.
- Nickerson, A. B., & Nagle, R. J. (2004). The influenc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s on life satisfaction in middl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1/2), 35-60. [https://doi.org/10.1007/978-1-4020-2312-5\\_3](https://doi.org/10.1007/978-1-4020-2312-5_3)
- Pianta, R. C., & Kraft-Sayre, M. (1999). Parents' observations about their children's transitions to kindergarten. *Young Children*, *54*(3), 47-52.
- Pinquart, M., & Schindler, I. (2007). Changes of life satisfaction in the transition to retirement: A latent-class approach. *Psychology and Aging*, *22*(3), 442-455.
- Ramey, C. T. & Ramey, S. L. (2004). Early learning and school readiness: Can early intervention make a difference? *Merrill-Palmer Quarterly*, *50*(4), 471-491. <http://doi.org/10.1353/mpq.2004.0034>
- Rimm-Kaufman, S., E., & Pianta, R. C. (2000).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the transition to kindergarten: A theoretical framework to guide empirical research.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1*(5), 491-511. [https://doi.org/10.1016/S0193-3973\(00\)00051-4](https://doi.org/10.1016/S0193-3973(00)00051-4)
- Rouse, C., Brooks-Gunn, J., & McLanahan, S. (2005). School readiness: Closing racial and ethnic gaps. *The Future of Children*, *15*(1), 5-15. Retrieved

from <http://www.jstor.org/stable/1602666>

- Rubin, K. H. (1982). Social and social-cognitiv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young isolate, normal, and sociable children. In K. H. Rubin & H. S. Ross (Eds) *Peer relationships and social skills in childhood* (pp. 353- 374). New York: Springer-Verlag.
- Sabol, T. J., & Pianta, R. C. (2012). Patterns of school readiness forecast achievement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at the end of elementary school. *Child Development, 83*(1), 282-299. <https://doi.org/10.1111/j.1467-8624.2011.01678.x>
- Sameroff, A. J., & Haith, M. M. (1996). *The five to seven year shift: The age of reason and responsibi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ink, C., Edwards, C., & Weir, S.(2007). Helping children transition from kindergarten to first grade.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10*(3), 233-237.
- Smith, M. (2001).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ies: Contributions to young African-American children's peer acceptance.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2*(1), 49-72. [https://doi.org/10.1207/s15566935eed1201\\_4](https://doi.org/10.1207/s15566935eed1201_4)
- Wang, M.(2007). Profiling retirees in the retirement transition and adjustment process: Examining the longitudinal change patterns of retirees'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2), 455-474. <http://dx.doi.org/10.1037/0021-9010.92.2.455>

- 논문접수: 4월 16일 / 수정본 접수 5월 17일 / 게재 승인 6월 12일
- 교신저자: 은선민,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zzbprss@snu.ac.kr](mailto:zzbprss@snu.ac.kr)

## Abstract

### Patterns of Change in Children's Happiness during the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Focusing on Preschool Factors in Relations to Children and Parents

Ahn Subin, Eun Sunmin and Lee Kangy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nge patterns of children's self-rated happiness during the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an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attern. To achieve these goals, 7th (7-year-old) and 8th(8-year-old) year data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were used for investigat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children's overall happiness had significantly been lowered during the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Second, a cluster analysis revealed four distinct patterns of change in children's happiness: high-maintaining, high-to-low, low-to-high, and low-maintaining. Third, the aspects of an individual child's school readiness, parents' parenting behavior, parents' subjective happiness, and children's peer play behavior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ubgroups. Specifically, school readines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high-maintaining than in high-to-low; affective parenting was higher in high-maintaining than in low-maintaining or high-to-low. Children in groups of high-maintaining and low-to-high had higher levels of parental happiness in preschool period, compared to that of high-to-low and low-maintaining. High-maintaining children were higher in positive peer interaction but lower in play cessation. The results provide theoretical rationale of individualized intervention approach that would support children's happy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Key words: elementary school transition, happiness, change pattern, cluster analysis,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